

올해 10개대서 '진로탐색학점제' 시행

실제 커리어에서 지식활용도 높을 지가 관건

사회 진출 전 진로탐색 활동 평가해 학점 부여

올해 10개 대학에서 진로탐색학점제가 운영된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미리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단순한 경력 정도에 그치지 말고 실제 커리어 설계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개 대학에서 진로탐색학점제가 시행된다. 진로탐색학점제는 전공이나 교양과목 수업 외에도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진로탐색 기회를 주고 학점도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8년 대학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대학생의 57.9%가 대학생들의 고민으로 '졸업 후 진로'를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보다 취업이나 창

업 등 졸업한 뒤 무엇을 할지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기존의 취업지원뿐 아니라 진로탐색 기회를 늘리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에 자동차 제작 대회 참여 계획을 내고, 실제 활동을 한 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대학이 판단하면 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형태다.

교육부는 현재 공고를 내고 오는 22일까지 희망대학을 모집하고 있다. 희망대학의 운영계획과 인력, 학점 인정을 위한 규정 마련 계획 등을 평가해 이르면 3월 새학기부터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활동계획과 소요 시간을 감안해 각 대학이 인정학점 규모를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은 운영인력 인건비 등 교육부로부터 연간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년간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를 점검해 1년 더 지원한다.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에 더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측정해 대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A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바로 취업을 목전에 둔 학생들이 만큼

커리어와 연결된 진로탐색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 입장에서 제대로 취업이나 창업에 연계된 계획인지 평가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진로탐색 외에도 각 학교는 이론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일회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1

1004섬 섬마을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떠난다

신안군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은 신안군과 신안군경제재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1개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베일)로 11일 출국 하였다.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국제적 감각을 증진 시키고 현지에서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베일)에서 진행된다.

신안군은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모두에게 기회를 주어 영어지필 및 구술시험을 치러 최종 30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참가자와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참가학생이 해외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내에 한정된 사고의 범위를 더 넓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촉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남교육청, 2020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시동'

서류심사 통과 546팀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작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2년 차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류 심사를 통해 '2020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참가 대상 546팀을 선발한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향후 준비사항을 돕기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과 나주 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아트홀,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에서 권역 별로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심사에 대비한 브리핑 자료 작성 방법과 면접 심사 준비 사항 등을 예시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연간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월 중 참가 팀 최종 선발을 마치고,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2년간 사업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송용석 교육국장도 "프로젝트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월 최종 선발된 선정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허성은 기자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 겨울방학 방과후 과정 운영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이 겨울방학 동안 휴식과 돌봄이 있는 방과후 과정을 상시 운영한다.

지난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들을 유치

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금 등을 사용해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화 했다.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교실 분위기 망가져 vs 민주교육 실천' 만18세 선거권 '갑론을박'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데 대해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가 어른들의 정치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고3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당국은 과도한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두는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 '교실 정치화...공부 집중할 학생들 혼란스러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학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일어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외부에서 정치나 이념 세력이 교육에 개입할 수 있고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성철 대변인은 "한창 대입 고민할 시기에 선거교육이나 투표 독려로 애들은 더 정신 없어진다"고 말했다.

2002년 3월 22일생 심모양은 "학교 분위기가 솔직히 걱정"이라며 "교실 분위기가 망가질까 불안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 '민주시민교육 실천하는 과정...' 현명한 의사결정 가능해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크다. 책으로만 봤던 투표를 학생시절 직접 경험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주권을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만18세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충분한 나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교육학)는 "민주시민교육이나 교과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과 연결되는 만큼 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는 되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교육강화와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며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 고3 대상 선거교육 예정...가이드라인도 마련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은 고3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월 말까지 사회 등 관련 교과 수업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선관위와 함께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후속 대책 방안에도 대해서도 협의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꼭 정치 선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큰 틀의 민주주의의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관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정치권도 학생들을 표로만 보서는 안 된다"며 "청년 공약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